

■ EU,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 착수

○ 유럽집행위원회는 위해 가능성에 따라 66개 화학물질을 우선지정 목록에 포함시킴

- 이 화학물질들은 관련 연구에서 최소 한 번이라도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로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들을 ‘1등급물질(category 1 substances)’로 분류함
- 564개 후보 물질 중에서 네덜란드의 컨설팅 기관인 BKH와 TNO가 생산량과 자연에서의 잔류성을 기초로 선정한 147개 물질 중에서 우선 추출되었으며 향후 검토 과정에서 더 추가될 전망이다
- 현재 EU 회원국이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전에 산업계와 NGOs 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
- 향후 보다 정밀한 위해성 평가를 거쳐 규제 여부를 검토하게 됨

○ 이들 화학물들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남에 따라 ‘1등급물질’에 포함됨

-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편차가 크고 때로는 모순된 결과로 인해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암이나 생식 교란과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로 제시되고 있음
- DDT, PCBs, 유기주석류, 다이옥신, 일부 살충제류, 스타이렌, 몇몇 프탈레이트 중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중 살충제, 스타이렌, 프탈레이트 등은 이미 어린이 장난감에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

○ 금년 후반이나 내년부터는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

- 지속적인 위해성 평가와 검토 과정이 EU 내부뿐만 아니라 OECD¹⁾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정확히 어떤 물질들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‘1등급물질’들은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자문 과학자단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공조해 보다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
- 규제 시행을 대비해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과정을 재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

이 광 원(02-3669-4310, kwlee@hri.co.kr)

1) OECD에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를 위한 위해성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